

추석에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같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어둠의 상황에서도
언약백성들과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251장(통일찬송가 137장)「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156장「다 와서 찬양해」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사무엘상 16:6~13(구약 p.434) 인도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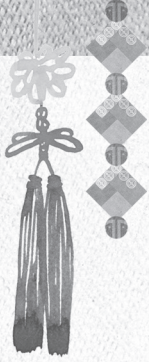
축복과 비전나눔 온 가족이 다함께
(가족 모두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나누고
집안 어른들은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찬 송 620장「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413장「준귀 오 준귀하신 주」

마 침 주기도문 다같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가정

(사무엘상 16:6~13)

가족들의 따뜻한 정이 가득한 명절에 온 가족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다윗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탁월한 장수(將帥)로 기골이 장대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다'(삼상 10:24)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의 칭찬에 백성들도 '사울 왕, 만세!'로 화답했습니다. 사울은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해 위세를 떨쳤습니다(삼상 14:47).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삼상 13:13, 15:19).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분오열(四分五裂)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임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아말렉과 싸움 후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용 전리품인 짐승들을 남겨 둡니다.

왜 사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삼상 14:52)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 하셨습니다(삼상 15:11).

사울이 하나님 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사울 왕이 두 눈 뜨고 통치하는 상황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정치적 모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이새에게 찾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 민족과 열방에 지도자를 세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12절). 누가 지도자를 지명하여 세웠는가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된 것,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명성, 다윗의 승리, 다윗의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7~10, 12절)란 주어로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와 방향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로 나를 세워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부모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가 된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직장의 상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로 선택되고 세워진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삶의 각 영역에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7절).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지도자 선택 기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中心, heart)’으로 번역한 단어는 ‘심장’을 뜻하고 이는 곧 인간의 내면과 인격적인 요소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중심은 감정의 자리(신 6:8), 지식과 지혜의 자리(신 8:5), 양심과 도덕의 자리(욥 27:6)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즉, ‘중심’은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음을 중히 여기는 까닭은 마음이 인간성을 대표할 뿐 아니라 인간 행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창 20:5).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전심(全心)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 무심(無心)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 능력, 소유, 성별을 지도자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 피조물의 아무리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한 목동, 지도자가 되기 위한 배경이나 훈련도 전무했던 자연인, 물맷돌을 잘 던지는 능력 밖에는 아무 능력도 없던 십대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모, 성도, 순장, 직분자, 직장상사, 국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나의 실력과 무관함을 늘 인지하며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지금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세운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성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정의 자녀와 부모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全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맞이해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가정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